



오늘의 말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편 23:6

오늘의 주요 기사

- | | | | | | |
|-----|----------|-----|------------|----|--------|
| 2 | 성탄가족예배 | 6-7 | 유아세례자 | 10 | 군선교 후기 |
| 3 | 성탄음악예배 | 8-9 | 교역자 사임인사 | 11 | 십자말씀이 |
| 4-5 | 양육클래스 후기 | 10 | 희망상자 봉사 후기 | 12 | 편집후기 |



목적이 이끄는 헌금

얼마 전 함글함글 앞으로 목적헌금이 들어왔습니다. 함글함글을 사랑하는 어느 성도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글함글을 보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신 헌금입니다. 함글함글에 있는 십자말뚝이를 풀어 제출해주시는 분들과 함글함글을 읽은 소감을 제출해주시는 분들께 선물을 드려 달라고 맡겨주신 귀한 헌금이기에 보내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함글함글 제493호부터 제495호까지 십자말뚝이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각 호별로 열 분과 함글함글 기사를 읽고 소감을 제출해주시는 여섯 분께 커피쿠폰을 드립니다. 십자말뚝이는 함글함글 지면에 답을 직접 쓴 사진을, 함글함글 기사 소감은 아래한글이나 워드로 A4 1장 이상 분량으로 작성한 파일을 함글함글 메일(pclhamletter@naver.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드린 귀한 마음이 주님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으로 번져 모든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연말과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성탄가족예배

예수, 나의 기쁨!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눅 2:14>

2024년 성탄가족예배는 유아숲 주관으로 22일 주일 오후 1시에 대예배실에서 드렸습니다. “예수, 나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유아숲 3개 부서, 유소년숲 4개 부서, 청소년숲, 총 8개의 순서로 진행된 올해 성탄가족예배는 아이들이 찬양과 율동을 통해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의 기쁨을 보는 모든 주님의교회 성도들도 한없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유아숲 교사 오픈닝 찬양팀이 ‘Joy to the world’로 성탄가족예배를 신나게 시작했습니다. 4~5세인 유아부 친구들이 ‘크리스마스 댄스’와 ‘예수님 믿으세요’를 율동과 함께 선보였습니다. 성탄예배에서 유일하게 부모님과 함께 무대에 올라온 15개월~35개월 영아부는 ‘하나님 저 왔어요’와 ‘반짝반짝 예수님 별’로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했습니다. 유아숲의 제일 큰 언니부서인 6~7세 유치부 친구들은 ‘누가복음 2장 14절’과 ‘랄랄랄라 기뻐해요’로 유아숲 순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유소년숲 EM은 영어예배 부서답게 ‘O holy night’과 ‘Still still still’을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로 찬양했고, 유년부(1~2학년)는 ‘아기 예수 오셨다’와 ‘신나는 크리스마스’를, 초등부(3~4학년)는 ‘성탄절 찬양 메들리’를, 소년부(5~6학년)는 ‘기쁜 소식’을 찬양하며 성탄절 가족예배를 더욱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특한 청소년숲 친구들은 ‘감사함으로’를 신나는 워십과 함께 즐겼습니다. 청소년숲 찬양이 끝난 후에는 다함께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며,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평화입니다. 그 기쁨을 어린 시절부터 함께 즐기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즐겁게 노래하며 나누는 주님의교회 유아숲, 유소년숲, 청소년숲 친구들에게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이, 기쁨이,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함줄함울



성탄절
성탄음악예배

글과 사진으로는 답을 수 없는 소리, 그 감동

사랑,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주기도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 사랑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며 지금 그 사랑이 세상을 구하는 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 사랑을 짓밟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당신의 오늘은 어떠한가요? 연말을 맞이한 들뜬 분위기 속 남들처럼 행복한 듯하지만, 이유 모를 공허함으로 괴로워하고 있진 않나요? 열심히 살아갈수록 남아있는 상실감. 이 절망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400년 전에도 동일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말

라기 1:2) 그리고, 400년의 침묵 끝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대답.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이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날, 당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날. Merry Christmas, Happy Birthday, Jesus. <음악예배 영상 중에서> 성탄음악예배는 글로도, 사진으로도 그 감동을 답을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그 감동을 느끼지 못하셨다면 영상으로도 그 감동을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동은 성탄절뿐만 아니라 매일 매일 느끼며 살아도 너무나 좋으니까요.

함글함글



겨자씨 이야기

겨자씨와 미자립교회의 자매결연

4-17 나품예마 겨자씨(인도자: 박석진안수집사) 식구들이 자매결연을 위해 12월 8일에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성신교회를 방문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북노회에 속해 있는 성신교회는 2007년 7월 7일에 설립하여 대형교회가 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약자를 밀착 보살피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출석교인 19명(13가정) 중에 장애인 4분(정신지체 1급, 2급 외)과 어르신 4분(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분 외)이 있으며 주일예배와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송의동은 구도심 지역으로 사회적 약자가 많고 특히 학교가 많아서 다음

세대의 전도가 필요한 지역이다.

나품예마 겨자씨는 자매결연과 함께 2년 약정의 선교헌금과 기도 후원에 대한 협약을 하였다.

초대교회는 고아나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헌금의 많은 부분이 구제를 위해 사용되었다. 사회적 격차가 심해진 현대사회에서 특히 돌봄이 필요한 자를 사랑으로 돌보아야 할 때이다.

유종숙 권사 / 4-17 나품예마 겨자씨

양육클래스
나의 사랑하는 책
(시편강해)

나의 시편

2학기 양육클래스 ‘나의 사랑하는 책(시편강해)’을 수강한 박정숙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아시아선수촌공원에서 가을소풍을 가졌어요. 많이 망설이다 참석했어요. 날씨도 너무 화창했고 같이 한 공동체 게임도 좋았어요.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점심 도시락도 너무 맛있었는데, 매주 정성드려 영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먹여주시는데 육의 양식까지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소풍의 마지막 순서로 ‘나의 시편’을 적어보라고 해서 무척 당황했는데 동시에 눈물이 너무 흘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감사했어요. 한참 울다 흐릿한 눈으로 적어본 나의 시편입니다. 원고 부탁을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조금 수정하여 올립니다.

2021년 6월 중순 코로나가 한창이던 아침 일찍 남편이 쓰러졌어요. 바로 응급실로 갔지만 대기표를 받아 건물 밖에서 기다리다가 진료를 받고, 많은 검사를 한 결과 이상없음으로 진단을 받고 오후에 귀가했어요. 그런데 저녁에 남편의 상태가 더 나빠져서 다시 다른 병원 응급실을 갔을 때는 뇌경색 진단과 골든타임이 지나서 예후가 나쁜 상태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면회도 안 되는 시기에 중환자실-입원실-요양병원으로 혼돈과 혼란의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지금까지 담임목사님, 교구 목사님, 많은 목사님과 겨자씨 식구들과 저희를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고비고비를 잘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염치 없지만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소풍에 참석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 부족하나마 적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어보게 된 ‘나의 시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몇 년 저희 가정에 일어난 큰 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놀라고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몸부림치며 많이 울고, 많은 것을 후회하며, 아파하며, 믿음이라곤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긴 시간이 지나 올해부터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고, 힘들게나마 일상을 살며,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난 고아가 아니고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안이고 은혜였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저와 남편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남편을 고쳐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서로 마주 보며 일상을 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덜 건강한 저희 부부가 하나님 안에 살게 해 주시고, 늘 최선을 다하게 해 주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신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과정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박정숙 집사 / 6교구



양육클래스
구약산책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난 학기, 이종성 목사님의 "구약 산책" 강의를 듣고 말씀 안에서 또 한 걸음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미술, 인문학, 그리고 성경을 조화롭게 엮어주시며,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명화를 성경구절과 함께 소개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시 예술가들이 성경 속 이야기와 일상의 주제를 작품의 모티프로 삼아, 그들의 신앙과 가치관을 화폭에 녹여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술을 전공했던 저는 이전에는 단순히 미술 사조, 화풍, 색채, 붓터치 등의 측면에만 집중했지만, 지난 강의를 통해, 그림 속에 담긴 성경적 의미와 작가들의 믿음을 함께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명화들이 단순히 예술적 감상의 대상에서 벗어나, 작가들의 작품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의 표현물로 다가와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라는 주제로 시작된 이번 수업은 모세오경부터 시작하여 구약 전반을 역사적 흐름에 따라 공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 주제와 관련된 여러 성경 구절들을 서로 연결해 주시며 넓고 깊은 이해를 도와주신 것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에스겔서를 다루실 때, 시편 137편을 함께 언급하시고, Boney M의 "Rivers of Babylon" 가사를 보여주셨는데, 어린 시절 TV에서 보았던 그들의 시대

착오적인 복장과 슬픈 표정이 바벨론 포로시기에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슬픔과 시온을 향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임을 깨닫게 되어 새로운 느낌으로 팝송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업 중간마다 가스펠 찬양을 함께 부르는 시간도 특별했습니다. 민수기를 공부하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를 찬양할 때, 이전에는 멜로디와 가사에만 매료되었지만, 이번에는 갈렙의 믿음과 그를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가스펠을 부를 때면 성경 속 인물들의 마음과 상황이 생생히 그려져, 찬양할 때마다 더 깊이 공감하며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학기, 제가 좋아하는 예술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보며 그의 인생과 그림으로 한 강의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예전에 네델란드 암스테르담의 반 고흐 뮤지엄을 방문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빈센트와 그의 작품을 바라보게 되어서, 현재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빈센트 반 고흐전"이 더 기대가 됩니다.

언젠가 프랑스의 오베르 마을, “까마귀가 나는 밀밭”의 배경 속을 직접 거니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어디에 계시든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종성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정연 집사 / 4교구

양육클래스
천로역정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위한 천로역정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_ 마 13:44

분주한 일상의 삶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의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만난 것이 참으로 복된 축복임을 느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천국을 막연하게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천로역정.” 대부분의 교인들이 들어 보거나 읽어본 책이라 생각되듯이 저도 어렸을 때 앞부분을 읽다가 지루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아 그만둔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이번 양육클래스에서 이 강의가 개설되어 설레는 마음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강의는 총 9강으로 구성되었는데 1~8강은 책을 읽은 후 책의 내용과 성경 말씀으로 공부하고 9강은 실제로 순례길을 찾아가 책 순서대로 걸어보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첫날에 50여 명의 많은 성도들이 모여 박민규 목사님과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매 강의 시간마다 박민규 목사님이 많은 PPT자료를 준비하시고 그날의 주제가 되는 핵심을 현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서두를 풀어가시며 쉽게 설명하셔서 강의에 온전히 빠져들어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님의 열정과 수고가 조용히 퍼져 회차가 지날수록 인원이 점점 늘어 80여 명이 되었습니다.

“왜 천국인가?” 삶과 믿음은 따로 떨어진 별개가 아니고 천국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통해 천국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하며 나는 과연 믿음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았나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책의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성경의 말씀과 연결지어 매 회 더할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며, 중요한 것은 천국을 향한 방향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8번의 강의가 끝난 후, 11월 30일에는 49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가평의 필그림 하우스로 출발하였습니다. 필그림 하우스는 주인공 존 버니언의 회심에서 천국까지의 여정을 조형물과 건축물로 형상화하며 조성된 길입니다. 순례길에 참여하던 도중 가장 인상 깊고 감동을 주었던 곳은 주인공 크리스천이 그토록 벗어던지고 싶었던 등에 묶인 짐(죄인식)이 저절로 벗겨진 십자가 언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분명히 깨닫고 인내와 기쁨으로 끝까지 순례의 여정을 완주한 주인공처럼 저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겸손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였습니다.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며 열정과 사랑으로 강의해주신 박민규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80명의 성도들과 함께 정말 강의 듣기를 잘했고 또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며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마칩니다.

권택정 집사 / 5교구

유아숲

‘유아숲 1부’ 부서가 되기까지

2025년 1월부터 유아숲(주님의교회 미취학 부서)에는 ‘유아숲 1부’ 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사실상 2024년까지 9시 시간대에 영아1부-유아1부-유치1부의 이름으로 세 부서가 운영되었다면, 2025년 1월부터는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여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연령대의 유아숲 어린이들이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 고민이 있었지만, 2024년 한 해 동안 영아1부-유아1부-유치1부가 한 달에 한 번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1부 통합 부서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3년간 현장에서 부서를 운영해 오면서, 출산율 저하로 인한 급격한 미취학 어린이 인구 감소와 주일 이른 아침 9시 예배라는 현실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는 데에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2-3년간 1부 부서 선생님들과 부장단의 고민과 기도로 인하여 순조롭게 뜻이 모아지게 되었고 ‘부서 통합’이 순적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유아숲 1부 통합 예배를 통해 지난 1년간 시험해 보고 준비해 온 대로 ‘예배’는 더욱 풍성하게 ‘반별 활동’은 수준별로 나누어 발달의 시기에 맞게 진행함으로써, 풍성한 예배와 눈높이에 맞춘 반별 교육을 이상적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감사한 것은 기존 영아1부-유아1부-유치1부 선생님들이 대부분 함께 해 주셔서 부장단과 총무교사, 담임교사와 부담임교사, 그리고 반주자와 찬양인도 선생님까지, 각 1부 부서 선생님들의 다양한 역량까지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유아숲 1부 부서는 완전체가 되어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뜻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1부 부서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유아숲 내에서 가정 단위의 예배가 가능한 장점을 살려 유아숲의 특성화 부서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유아숲 1부 부서 담당 이영선 목사, 부장 지형민 안수집사, 부감 조은경 권사, 총무 황혜영, 회계 한원선, 간식담당 이미화 선생님, 담임 조복선,

이인숙, 안정현, 김미리, 박정준, 염기영 선생님, 부담임 전기옥, 이동근 선생님, 찬양율동 강현서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 나가는 유아숲 1부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경 목사 / 유아숲



새 생명의 축복, 유아세례를 축하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세례를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부모님과 교회가 함께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신앙의 길을 인도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합동합을



김루아 아기 아빠: 김도엽, 엄마: 김혜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루아를 신앙 안에서 바르게 키울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김신우 아기 아빠: 김우열, 엄마: 곽우분
자녀에게 굳건한 신앙과 믿음을 물려주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크게 쓰임 받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김아린 아기 아빠: 김택용, 엄마: 김나연
아린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밝고, 밝고,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아린이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박이서 아기 아빠: 박광재, 엄마: 채재영
사랑의 하나님께서 때마다 이서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길
이서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딸이 되길
이서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아린 아기 아빠: 오동엽, 엄마: 안하영
주님 말씀 안에서 건강하고, 밝고, 바르고, 현명한 아이로 잘 자라나게 하소서.



원라엘 아기 아빠: 원대현, 엄마: 박찬미
하나님 아버지, 라엘에게 건강과 안전을 허락하시고, 사랑과 지혜로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온전히 당신 안에서 자라길 기도합니다.



윤민우 아기 아빠: 윤영민, 엄마: 조수민
하나님께서 민우에게 건강과 형통의 복을 주셔서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지혜를 닮아가며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나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섬기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믿음의 부모로서 잘 인도하게 하소서.



이든든 아기 아빠: 이현현, 엄마: 성예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보내주신 귀한 자녀 저희 가정에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 주님의 든든한 자녀로 성장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하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세요



이루미 아기 아빠: 이재원, 엄마: 송세미
주님의 선함을 깨우쳐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소서.



이하민 아기 아빠: 이화섭, 엄마: 전예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하민이를 계획하시고 저희 가정에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민이가 주님 사랑 안에서 밝고 따뜻한 아이로 자라게 하시며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감사할 줄 아는 선한 아이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너의 작은 손과 발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 있고,
너의 밝은 눈동자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담겨 있어.
세례를 받는 이 순간부터, 너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고,
너의 인생이 이 땅에서 빛나는 별처럼 환하게 빛나길 기도한다.”



임이준 아기 아빠: 임택훈, 엄마: 박화영
부족한 우리 부부를 주님의 축복 속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은혜로 이준
이를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참포도나무의 가지로 성령의 열매
맺으며 주님의 뜻 가운데 이롭게 쓰임 받
도록 준비된 자로 이준이로 이름을 지었
습니다. 거룩하고 선한 일에 온전히 쓰임
받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전우주 아기 아빠: 전병선, 엄마: 김주영
하나님 우주가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소서. 또한 믿음의 자녀
로서, 사랑받고 사랑을 베풀고 나눌 줄
아는 따뜻한 아이로 성장하게 하소서.



정이든 아기 아빠: 정도훈, 엄마: 이은누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
소서.
지혜가 충만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
게 하옵소서.



조서연 아기 아빠: 조주현, 엄마: 김도연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충만히 살게 하소서.
사랑으로 남을 돕는 사랑이 가득한 삶 살아
가게 하소서.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도록 강한 정신과
지혜를 주소서.



조수아 아기 아빠: 조우현, 엄마: 이주현
하나님 사랑과 보호하심 아래 매일 삶 속
에 감사와 기쁨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매순간 기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
하고 건강한 일꾼 되게 허락 하소서.
부모가 매일 삶으로 예배 드리며 이웃을
섬기는 빛과 소금 되게 하소서.



주시온 아기 아빠: 주하운, 엄마: 김인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
게 자라며 만나는 모든 이들과 만남의 축
복이 있고, 부모 또한 좋은 길잡이이자
본보기가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요셉과 같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차주하 아기 아빠: 차동희, 엄마: 황수진
저희 부부가 믿음으로 아이를 키워갈 것
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주하가 자라는
인생길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
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입술의 신앙고백
을 넘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을 높이는 세례교인이 되게 축복하여 주
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마태복음 19: 14~15

여호와께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24~26



사랑과 헌신으로 함께한 시간

그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사랑으로 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이끌어 주셨던 발자취는 우리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함께한 시간 속에서 나눈 말씀과 기도, 헌신이 모두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떠나시는 걸음마다 주님의 평안과 인도하심이 함께 가시기를 기도하고, 어디에서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역이 이어지기를 축복하며, 사임하시는 교역자분들의 사임인사를 소개합니다. (분량에 따라 무순 배치) **함글함글**



김지원 전도사

안녕하세요, 주님의교회 청소년순 고등부를 섬긴 김지원 전도사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뜻 안에서 청소년들과 함께할 수 있어 참 행복했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던 청소년들의 모습, 그들과 함글함글했던 모든 순간들이 제게는 소중하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귀한 여정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과 동역자들, 그리고 늘 사랑과 기도로 함께해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곳을 떠나게 되지만, 앞으로도 주님의교회와 청소년순이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자리에서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권동준 전도사

안녕하세요. 권동준 전도사입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교회에 부임한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더할나위 없는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제겐 첫 사역지였기에 부임 전에 몇 차례 수요기도회를 참석할 때부터 부담이 참 컸던 건 사실이지만, 주님의교회를 통해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 기대되어 부담은 곧 감격으로 바뀌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덕에 주님의교회에서 만나게 된 귀한 성도님들과 부서에서 만난 어린이들, 함께 섬겨주신 선생님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교회에 대한 섬김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늘 시대적 어려움은 있었으나 동시에 늘 예수 그리스도에서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함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주시니, 오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부르심에 응답하며 서게 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세상을 섬겨나가는 작은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노홍주 목사

안녕하세요 노홍주 목사입니다. 함글함글에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네요.

먼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장애인사역부를 지원하며 주님의교회에 면접을 보러 갔던 기억이 정말 엇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시간동안 행복한 기억만 가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감사와 은혜가 가득합니다. 우성상가에서 선생님들과 떨리는 첫 만남, 그리고 줌으로 처음 예배를 드렸던 그 때가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가까이 못했던 시간들, 함글함글하며 사랑나무에서 지냈던 모든 시간들이 그림같이 눈 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인자함으로 따뜻함으로 대해주셨던 김화수 담임목사님과 부임동기(?)인 구제복지분과의 배운환 목사님, 장애인사역부의 김은선 목사님, 함께 했던 동역자들, 그리고 헌신과 충성으로 섬기셨던 사랑나무의 선생님들과 너무나 많은 사랑을 나눠주셨던 사랑나무 가족들,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하고 이렇게나마 지면을 빌려 인사드리는 부분을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일산에 있는 든든한교회의 부목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된 일꾼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받은 사랑을 잊지 않으며 열심으로 사역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한시영 목사

주님의교회에서 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며 교구와 부서를 탁월하게 섬기셨던 많은 분들을 경험하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저에게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본 게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봐놓고, 영향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끊임없는 변신은 각자의 몫이라 했던가? 나에게 지루해진 삶은 어디에서도 환영받기 어렵습니다. 긴장감 없이 편안해진 일상은 이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지속적인 자극이 필요합니다. 어제와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제와 같은 에너지로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와 동행해 주시고 동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걸어온 뒤를 돌아보니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자리를 살펴보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보입니다. 주님의교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새해에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편안한 환경을 흔들고 가슴 뛰는 일에 도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지 다시 다짐해 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6



장성식 목사

안녕하세요. 장성식 목사입니다. 주님의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의 사역 인생에 있어 잊지 못할 추억들을 한껏 안아 갑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음에도 감사했습니다.

이별은 늘 아쉽고 서운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디에 있든지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 품 안의 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또 다른 공동체를 섬기러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나라 위해 신실하게 일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교회에서 느꼈던 따뜻함을 경험하도록 이 또한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수민 목사

안녕하세요. 이수민 목사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소년 1, 2부를 섬겼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잠시 사역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를 주님의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3년간 동고동락했던 유소년들 식구들, 소년 1, 2부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3년 전, 코로나19의 여파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서서히 회복의 길로 나아갈 때 처음 주님의교회에 부임하였습니다. 현장 예배가 시작되고, 잠시 멈추었던 교회학교가 하나 둘씩 움직이며 회복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회복의 과정을 함께 하며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복음 전하는 길로 쓰일 수 있어 참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새로운 사역을 꿈꾸며 주님의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성 목사

지난 6년 동안 열심히 목회한 것 같은데 열매는 많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시간 제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보석처럼 빛나는 더 없이 좋은 성도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제 목회 여정은 선물과 같은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칭찬해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해주셨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교회는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주님의교회가 더 한국 교회의 표본으로 아름답게 빛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큼니다. 앞으로도 겉손히 잘 섬기며 목회하겠습니다.



임경순 목사

2018년 전임목사로 부임하여, 2019년부터 6년간 부목사로, 주님의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시간안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실수가 없으시고 부족함 없으신 주님과 연약하고 미련한 자를 품어주신 성도님들의 사랑 덕분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제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과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살려져왔습니다.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질풍노도의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걸음을 함께 걸어준, 귀하고 놀라운 청소년 가족들과 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부모님, 교역자, 그리고 선생님들께 늘 응원하고 기도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주영 목사

사랑하는 주님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에 의한, 여러분들의 박주영 목사입니다.

우선 전임전도사로부터 시작하여 9년의 시간을 성실하게 인도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지난 시간 동안 '제가 교회이고, 교회가 저'라는 착각 속에서 행복하게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되돌아 보면 모든 시간이 은혜였노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분의 담임목사님께 살아있는 목회를 배울 수 있었고, 또 좋은 동역자들과 성도님들을 통해 여전히 부족하지만 조금씩 다듬어지며 사람답게 빛어져 갈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 생각하며 마음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갑니다. 좋은 마음을 먹기 위해 노력하고 선행을 옷 입듯 하며 그동안 제게 말씀 주셨던 신앙을 치열하게 실험하여 매 순간 '주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살아보겠습니다. 늘 강건하시고, 천국에서 꼭 뵈겠습니다.

(사)섬김과 나눔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

희망상자를 나누고서

“주님의 크신 사랑 받은 자답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따스한 온기를 나누게 하소서.” 기도를 드리며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섰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12월 23일 월요일 (사)섬김과나눔에서 주관하는 2024년 성탄절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에 교우님들의 성탄헌금과 후원금으로 만들어진 “희망상자”를 송파지역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날에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출발을 하였습니다.

거여 경로당에 제일 먼저 도착하여 미리 준비한 140개의 희망상자를 보는 순간 주님의교회 교우님들의 사랑을 느끼며 상자 하나하나를 만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상자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궁금도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무의탁 어르신 생활지원팀을 중심으로 청년부와 남선교회 봉사자들이 참석하여 함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김화수 담임목사님과 희망상자를 전달하며 병으로 투병 중인 어르신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릴 때 함께한 봉사자들은 주님의 탄생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다고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늘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희망상자와 선물을 나누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등 그분들 모습이 늘 마음에 남습니다. 봉사할 때마다 자주 씌는 고시원 쪽방에서 식사 시간마다 소주를 마시는 분, 하루 세끼를 컵라면으로 식사하는 분, 캄캄한 방 한구석에서 누워만 계시는 분들…….

세상의 양극화로 요즘 온 나라가 서로를 향한 원망과 비난이 가득하지만, 희망상자를 나누며 “그분들에게 우리는 오늘 어떤 희망을 드렸나?”라고 내 자신에게 물으며 “주님, 주님을 어떤 상황이라도 사랑하게 하소서 비록 어두운 그림자가 이 땅에 덮여 있을지라도 주와 같이 걸가는 걸음마다 사랑이 가득하게 기도가 쉬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신형섭 장로



군경선교부

군선교 성탄선물 보내며

국내선교위원회 군·경선교부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군경선교에 비전을 품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직면한 다양한 변화(사고의 다원화, 가치관의 변화, 디지털혁명의 소통방식 등)로 인해 군생활의 편리성이 높아지고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인한 개인 간섭의 자유함 속에 무신론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MZ세대가 점차 늘어나는 사회적 환경과, 군부대 통폐합에 따른 신병교육대대 해체 및 입대 장병들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군선교의 현장, 청년선교의 성지, 민족복음화의 요람인 전방부대 군인 교회에 진중세례식(연 6회)에 매회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기도와 동참으로 약 800여명이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군선교가 다음 세대 청년을 살리는 부흥의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교회에서 준비한 성경책을 선물하고 신병 훈련기간에는 5주 간에 간식(햄버거, 핫도그, 펜던트, 콜라, 십자가 배지 등)을 후원하여 세례받은 용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군 생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매달 전방부대 (8개 대대)와 송파경찰서 1개 기동대에 선교후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12월 17일에 교회 교우님의 자녀와 부대별 올해 세례자 중에 선별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을 담아 크리스마스 위문품(53상자)을 보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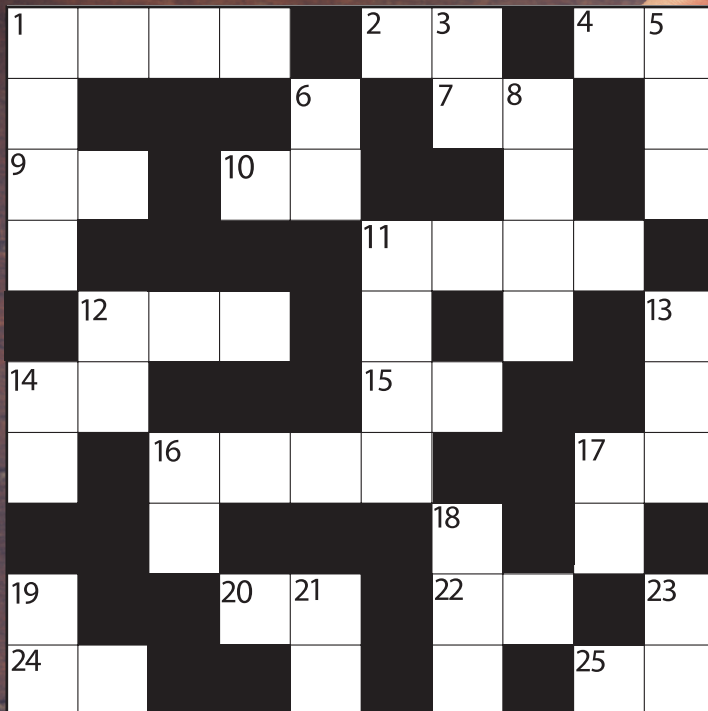
매 분기 마지막(주일)에 군선교와 군·경에 입대한 자녀와 장병들과 나라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진중세례식에 참석하셔서 사랑으로 장병들을 격려하고 보듬어 주어 주님의교회를 통하여 다음세대 청년을 살리는 부흥의 기폭제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첫 번째는 꽃피는 봄날에(3월 29일) 연천에 있는 신병교육대대 교회로 출발합니다.

군경선교부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 풀이
학개 편

이번 호는 <학개> 편입니다. 기원전 6세기 무렵 선지자 학개의 예언서로 전해집니다. 학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 성전 재건을 위해 노력한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493호 '스바냐' 편 정답



가로 힌트

1. 여호야긴 왕의 맏아들. 스룹바벨의 아버지이며 예수님의 선조 가운데 한 사람이다. (학 1:1)
2. 나라를 이루는 보통 사람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 택한 사람들을 뜻한다. (학 2:4)
4. 사사시대를 지나 나라의 형태를 갖춘 이스라엘 민족의 왕국 이름.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의 이름도 이와 같다. (학 1:1)
7. 천으로 만든 긴 자루로 돈이나 물건을 넣어 허리에 두르거나 어깨에 멜 수 있게 한 물건. 가방이나 지갑이 없던 시대에 요긴하게 쓰였다. (학 1:6)
9. 지구 위에서 대륙을 제외하고 물로 덮인 지역. 잔물이 가득하여 대륙 안의 호수와 구분된다. (학 2:6)
10. 어떤 일이 일어나는 시점.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학 1:2)
11. 여호수아의 아버지. 스라야의 아들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 (학 1:12)
12.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는 전지전능한 존재. '여호와', '엘로힘' 등으로도 쓴다. (학 1:14)
14. 어제와 내일 사이에 있는 날. 2교구에는 이 이름을 가진 겨자씨가 있다. (학 2:15)
15. 익은 곡식을 거두는 일. 비유적으로 어떤 일의 성과를 뜻하기도 한다. (학 1:6)
16. 어떤 까닭으로 인하여. "그러므로 너희로 ○○○○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학 1:8)
17. 높은 사람의 뜻을 전하는 사람. 아프리카 사바냐에 서식하는 동물 가운데 같은 이름의 맹수가 있다. (학 1:13)
20. 뜻을 가지고 하는 어떤 일. "너희는 너희의 ○○를 살필지니라" (학 1:5)
22. 힘이나 위세. 또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말하기도 한다. (학 2:22)
24. 어떤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 비유적으로 쓰여 어떤 현상이나 행위로 일어나는 결과를 말하기도 한다. (학 1:10)
25. 물건을 넣어 두기 위해 지은 건물이나 공간. 서울 중구 삼일로에는 소극장 운동의 기원이 된, 같은 이름의 연극공연장이 있다. (학 2:19)

세로 힌트

1. 유대 총독. 여호야긴 왕의 손자로, 페르시아왕 고레스가 허락하여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 (학 1:1)
3.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릴 목적으로 지은 건축물. 솔로몬이 지은 이것이 유명하다. (학 2:3)
5. 페르시아의 왕. 뛰어난 행정가로 운하와 도로를 정비하고 여러 민족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었다. (학 1:15)
6. 동물의 살을 식재료 개념으로 두루 부르는 이름. 동물마다, 부위마다 이름이 다르다. (학 2:12)
8. 제사장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 성막과 제사에 관한 최고 책임자였다. (학 1:1)
11. 여호사닥의 아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대제사장이다. (학 2:4)
12. 지표면에서 올려본 공중을 두루 부르는 말. 이 이름을 가진 배우가 여럿 있다. (학 2:6)
13.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학개도 이런 사람 가운데 하나이다. (학 1:12)
14. 사십과 육십 사이의 숫자. 사람 나이로 이 무렵에 흔히 어깨가 굳어 아픈데, 이를 "○○견"이라고 한다. (학 2:16)
16. "말"을 높여 부르는 표현. 성경에서 이 표현은 대개 하나님의 계시나 예수님의 선포를 의미한다. (학 2:10)
17. 아담과 하와의 후예.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이것을 만들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다. (학 1:11)
18. 굳건하고 튼튼하게. 무엇인가를 단단히 지키거나 할 때 이 표현을 쓴다. (학 2:4)
19. 어떤 지역에서 나는 산물. 비유적으로 무엇인가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학 1:11)
21. 어떤 일의 책임을 맡김. 교회에는 흔히 이를 맡은 목사가 있다. (학 1:13)
23. 어떤 것을 하기 위해 힘을 들임. 힘든 일을 맡은 사람에게 흔히 "○○하십니다"라고 인사한다. (학 1:11)

편집후기

풀리지 않는 일로 밤새도록 뒤적이다 아침을 맞이합니다. 갑갑증을 안고 교회 현관에 들어섭니다. 안내위원이 미소와 함께 나눠주는 주보와 함글함글을 받아 계단을 오릅니다. 앞서 계단을 오르는 분의 다리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저분도 밤새도록 잠 못 이루셨나 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같이 이용하고 싶습니다. 주보와 함께 받아든 “함글함글”제목 글씨가 유난히 선명하게 눈에 띕니다. 계단을 힘겹게 오르는 무거운 다리를 보다가 문득 우리는 이웃임을 깨닫습니다. 속시원하게 이웃과 함께 평평 울지 못했고, 눈치, 체면 안보고 함께 웃지 못한 아쉬운 마음으로 한해의 끝자락을 보냅니다.

김낙균 장로

24년 한 해 동안 주님 안에서, 함글함글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님 한분한분과 각 부서의 소식을 간접적이지만 만나며 삶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올 한 해 함글함글을 통해 주님의교회가 더욱 하나된 공동체로, 성도님들의 삶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소망하며, 다가오는 25년에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더 많은 은혜를 나누는 주님의교회가, 그 은혜를 잘 전달하는 함글함글이 되길 기도합니다. 박수빈 청년

코로나 이후 샘물 호스피스 병동에 봉사를 다녀왔다. 샘물 호스피스는 지인들과 하늘나라에 가는 작별 인사를 자주 했던 용인에서도 제일 먼 곳에 있는 곳. 나는 병동에서 딸의 간호를 받는 어머니 발을 일회용 장갑을 끼고 오일 발 마사지를 해드렸다. 눈을 감고 기도하며 온몸에 땀이 젖듯이 생과 사의 문턱에서 따님을 보는 어머니의 눈과 어머니를 보는 따님의 눈을 바라보았다. “모녀의 마음에는 어떤 달이 떠 있을까?” “오랜만에 발 마사지를 해드렸는데 시원하세요?” 하며봉사를마치고 병실을 나오는데 따님이 뛰어나오며 내 손에 비타 500을 쥐어준다. 뿌리치고 싶지 않다. 봉사 가운 주머니에 넣고 눈을 감았다. 이것이 바로 “내 마음에 뜬 달”이구나 하고 서울로 오는 차에 몸을 실으며 다사다난(多事多難)한 한 해 이렇게 보낸다.

신형섭 장로

올해 처음으로 미디어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함글함글 한 호를 발간하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애쓰는 분들의 노고를 볼 수 있었다. 기획 단계부터 편집, 원고 의뢰 및 수집, 교정, 출간까지 전 과정을 소수의 편집진이 매 3주마다 반복해서 작업한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바쁜 생업 중에도 시간을 쪼개어 묵묵히 헌신하시는 이분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응원 의 마음을 보낸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함글함글 소식지에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

신호철 장로

“아빠! 또 함글함글 해?”컴퓨터 앞에서 열심히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 나를 보고 아이들이 묻는다. 그렇다 오늘도 함글함글을 하고 있다. 3주는 왜 이리 빨리 돌아오는지.. 그래도 다 담지 못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 아쉬울 뿐이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음을 증명 한 시기에 함글함글에 담고 있는 현재가 과거가 되었을 때, 미래에 올 현재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

어진원 안수집사

교회의 함글함글 소식이 모여서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도의 헌신과 섬김의 흔적을 쫓아 편집하고 발간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함글함글이 성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선교의 증거로 가득찬 생명의 샘물과도 같은 복음의 소식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해동안 원고 마감 시간에 쫓기며 수고하신 디자인 간사님과 편집장 이하 모든 부서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익수 장로

지난 12월 8일 열린 ‘2024 사랑나무 에이레네 음악회’의 가장 첫 순서는 사랑나무 친구들의 핸드벨 연주였습니다. 흰 셔츠에 빨간 나비넥타이를 맨 사랑나무 친구들이 핸드벨을 들고 반원을 그리며 무대에 앉았습니다. 지휘자 선생님의 손짓에 따라, 친구들은 자신의 때에 핸드벨을 흔들어 〈젓가락 행진곡〉,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저들밖에 한밤중에〉 세 곡을 연주했습니다. 실내를 가득 채운 그 아름다운 음악에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각자 자신의 몫을 다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멋진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장경식 안수집사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작년 이맘때 주님의교회 처음 부임하여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때에 제가 담당하게 된 함글함글은 제겐 한 사람의 동역자였습니다. 주님의교회의 크고 작은 귀한 사역들을 담아 놓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함글함글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교회 성도들의 기쁨과 눈물을 모아놓은 함글함글은 교회의 역사책이자 사진첩인 것 같습니다. 한 해동안 수고하신 함글함글팀에게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차승천 목사

교회일정

12/31 (화)	송구영신예배
1/5 (주일)	신년감사주일, 성찬주일
1/6 (월) ~11(주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알립니다

1. 온가족이 함께 하는 신년 특별새벽기도회

일시 : 2025/1/6(월)~11(토)

주제 : “말씀 붙잡고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2. “자녀를 위한 축복기도” 신청

기간 : 12/31(화)까지

방법 : 구글신청서(문자 또는 카톡링크)

문의 : 각 부서 담당교역자

3. 기부금 납입 증명서 발급

일시 : 2025/1/12(주일)부터 발급

방법 : ① 홈페이지 직접 발급(온라인 기부금 납입증명서)

② 홈페이지 발급 신청

③ 사무실 직접 방문 접수(전화신청 불가)

문의 : 임미숙 감사(02.416.5181)

모집합니다

1. 주방봉사자

시간 : 주일 12시~2시

문의 : 신형섭 장로(010.5628.7957)

2. 호산나 찬양대

시간 : 1부 예배

문의 : 김성배 안수집사(010.3656.7559)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낙균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